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1(土)	12(日)
	
맑음 10/27℃	맑음 10/25℃

News

- **쏘울 해외서 잘 나간다** ②
- **로타 바이러스 주의보** ③
- **흥국생명 카리나 맹활약** ⑧

Entertainment

- **11kg 살찌운 한상진** ⑦
- **영화가 만화를 품다** ⑩

Wellbeing

- **나들이 도시락 싸기** ⑤



Books

- **숨은 1인치의 과학** ⑧
- **삶을 승화시키는 기술** ⑨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도청별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법원 “철거 방해 말라”

추진단, 강제 철거 검토...5월단체 강력 반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추진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 반대 농성중인 5월 단체 상대로 법원에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추진단은 강제철거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5월 단체는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1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방해 중단을 촉구한 추진단의 요구는 타당하다”며 “피신청인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추진 중인 옛도청 별관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옛도청별관 주변에 설치한 공사방해 물건을 수거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도청 별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추진단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되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만원을 채권자인 추진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5월 단체들은 점유를 풀지 않거나 공사방해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금을 물게되는 등 법률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추진단은 지난달 18일 ▲5월 단체들의 공사 방해금지 ▲공사현장 접근금지 ▲천막농성장과 별관의 검은 천을 제거토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면서도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등 대책마련에 나사로 있다. 5·18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이 같은 판결은 이미 예상했고,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농성을 풀 뜻은 없다”며 “향후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관련 단체와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당분간 자진철거를 설득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5·18 단체들의 반응을 본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12년 완공 예정인 문화전당건립 공사는 5월 단체의 별관철거 반대 농성으로 이날까지 78일간 공사가 중단 상태다.

/윤현석·최경호기자 choice@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10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F1경주장 건설공사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영암=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암 F1 경주장 기공

총길이 5,615km
내년 6월 완공

2010년 10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코리아 포뮬러원(F1)대회의 경주장 건설공사 기공식이 10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F1경주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기공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유선호·박지원·김영록·이윤석·전혜숙 등 국회의원, 대회운영법인 KAVO 정영호 회장,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 학계·경제계 인사,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도립국악단의 축하공연과 F1관련 동영상 상영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공사개요 보고, 환영사와 축사, 기념발과 등의 분행사와 다과회,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로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F1대회는 전남의 운명을 바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선도사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 전남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기공식은 주관랍석인 그랜드 스탠

드 등 26개 동의 건축물 공사 착공을 기념하고, F1대회 성공개최와 범국민적인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경주장은 총 길이 5천615km로 아시아에서 F1을 유치하는 경기장 가운데 가장 길다. 13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국내 스포츠 시설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2007년 공사를 시작해 현재 토목공정의 44%를 마쳤고, 내년 6월께 완공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떠납니다”

정동영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민주당을 탈당, 4·29 재보선에서 전주 덕진 지역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날 19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불출마 카드를 내세우며 정 전 장관의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통스러운 국민과 위기에 처한 한반도, 어려움에 빠진 당에 작은 힘을 보태려고 귀국했으나 지도부는 당원과

지지자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무소속 출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지켜달라. 잠시 민주당의 옷을 벗지만 반드시 돌아와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무소속 당선 후 복당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무엇이 진정으로 당을 위한 길인지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다”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선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의 상처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지금은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곧바로 전주로 내려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재보선 행보에 들어갔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이날 19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정동영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 저지에 나섰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연철호씨 체포...盧 前 대통령 압박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서 500만 달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36)씨가 체포됐다.

대검찰청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오전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연씨를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연씨를 상대로 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캐내고 있다.

이는 정삼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각각 후 취해진 조치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200장(1억원어치)씩을 받은 정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민정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박 전 수석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한편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 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씨가 제3자에게 부탁을 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2천520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정두언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추씨는 이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천만원어치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전날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LIRIKOS